

브라질의 외국인 투자환경과 한국기업 진출 사례 및 전략

2006. 3. 30



□ 발표자

- 한국수출입은행 김영석 선임조사역
- LG전자 이용욱 차장
(前 LG전자 브라질법인 근무)

□ 토론자

- KOTRA 김건영 부장
(前 KOTRA 상파울루 무역관장)
- LG경제연구원 김형주 박사
(고려대 경제학 석·박사)

< 목 차 >

1 주제 : 브라질의 외국인투자환경과 한국기업 진출 사례 및 전략

- I. 브라질의 성장 잠재력
- II. 브라질 경제의 펀더멘탈(Fundamental) 변화
- III. 외국인 투자환경
- IV. 한국기업의 대브라질 진출 사례와 전략

<참고> 최근 브라질 정치·경제 동향

2 주제 : LG전자의 브라질의 진출 성공 사례

- I. 브라질 법인 개요
- II. 진출과 성장
- III. 진출時 고려사항
- IV. 전망

I. 브라질 경제의 성장 잠재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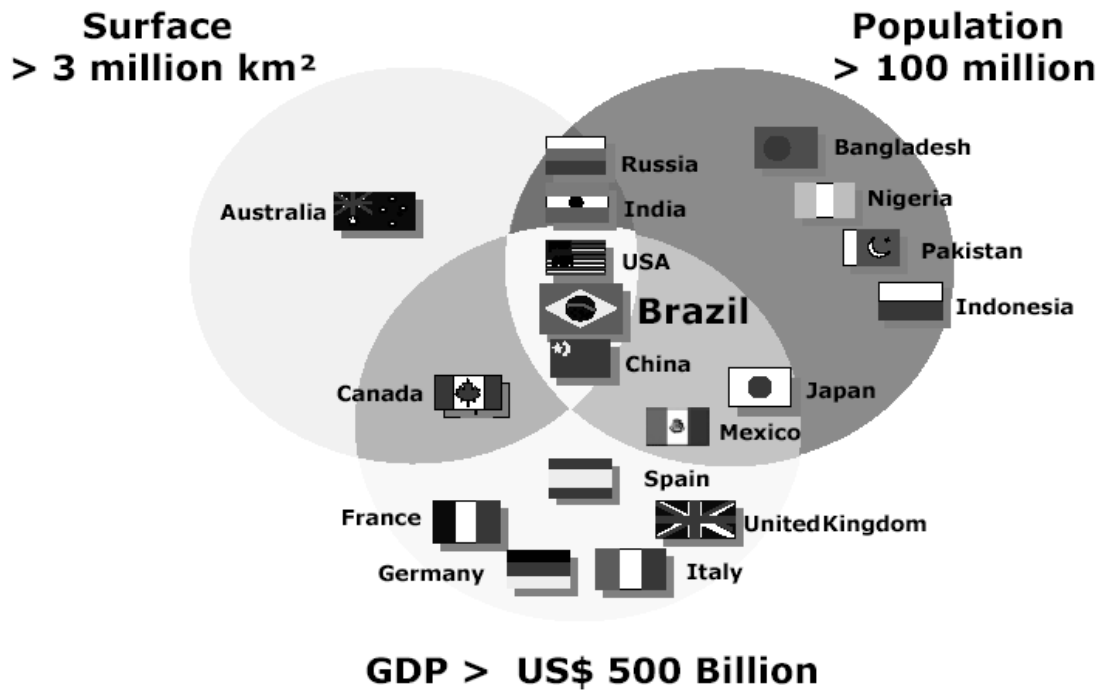
1. 성장 잠재력

□ 2050년 세계 5대 경제대국 전망

순위	2005년	2050년	
		골드만 삭스	PwC
1	미국	중국	미국
2	일본	미국	중국
3	독일	인도	인도
4	중국	일본	일본
5	영국	브라질	브라질

* 2005년 현재 브라질의 경제규모 순위는 세계 14위 (한국 11위)

□ 브라질의 성장 잠재력 비교



2. 성장의 동인

□ 풍부한 부존자원

- 브라질은 현재 석유 자급률이 90%에 달하며, 2006년에는 완전 자급자족이 가능하고, 2007년부터는 석유수출국 대열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됨. 석유 이외에도 철광석, 석탄, 주석, 망간, 니켈, 보크사이트 등 광산자원도 풍부함.
- 브라질은 또한,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식량 생산국이자 수출국으로 한 해 3억의 인구가 소비할 수 있는 농작물을 생산, 수출하고 있음. 주요 농작물은 밀(세계 3위), 콩(세계 1위) 쌀(세계 10위), 커피(세계 1위), 설탕(세계3위), 면화(세계 6위) 등임.
- 전국토의 20%가 초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등 풍부한 목축여건을 구비하고 있어 축산업도 발전해 있으며, 국토의 60%인 510만km²가량이 세계 산림 면적의 10%에 달하는 정글 및 산림지역으로 임산자원도 풍부하고, 277만km²의 영해에 300종 이상의 어류가 서식하는 등 수산자원도 풍부함.

□ 거대한 내수시장 규모 및 발전된 국내산업

- 브라질은 인구 1억 8천만 명의 중남미 최대시장으로 대부분의 산업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내수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음. 이로 인해 과거에는 자급자족형 수입대체 산업화정책을 시도하였으나, 1990년대 이후 무역자유화와 시장개방정책으로 전환하였고 1995년 MERCOSUR이 출범한 이후에는 다국적기업의 브라질 시장 진출이 급증함.
- 에너지, 자동차, 전자, IT 등 주요 제조업 분야에 다국적 기업이 수십 년 전부터 진출하여 현지에서 생산, 판매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브라질 국내 기업도 석유, 철강, 항공기산업 등 여러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음.
 - o '04년 기준으로 냉장고 컴프레셔 생산(세계 3위), 상업용제트기생산(5위), 자동차생산(9위)

□ 건전한 거시경제정책 지속

- 브라질은 까르도주 정부 출범 이후 전력, 통신, 석유, 가스 등 기간산업분야의 국가독점 폐지, 국영기업 민영화, 무역자유화, 조세개혁, 행정개혁, 사회보장개혁, 노동개혁 등 경제안정과 발전을 위한 각종 개혁정책을 시행해 왔음.
- 브라질 최초의 좌파정부로 세계의 주목과 시장의 우려 속에 2003년 1월에 출범한 룰라 정부도 당초 우려와는 달리 선심성 정책보다는 긴축과 안정, 개혁 위주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룰라 정부는 경제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물가안정과 공공부채 축소로 설정하고 긴축정책을 시행하는 한편, 지속적인 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선결과제인 재정수지 균형 달성을 위해 사회보장개혁, 세제개혁 등 각종 개혁정책과 수출드라이브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지역경제통합 가속화

- 남미공동시장(MERCOSUR)을 이끌고 있는 브라질은 남미국가들과의 결속 강화와 더불어, 중국, 인도, 러시아, 남아공 등 신흥경제대국과의 관계 강화에도 적극 나서고 있음.
- 지역경제통합의 가속화와 브라질 정부의 수출 드라이브 정책 그리고 최근 헤알화의 평가절하로 인한 생산비용 하락에 따라 브라질을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생산기지로 활용하려는 다국적 기업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음.

3. 장애요인

□ 낮은 국내 저축률과 투자재원의 해외 의존

- 브라질은 높은 소비성향과 과거 극심한 인플레이션 경험으로 인한 은행예금 기피현상으로 저축률이 25% 수준에 불과(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30% 상회)하는 한편, 고금리정책으로 인해 평균 대출금리가 연리 60%를 상회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저축이 투자로 이어지는 금융의 자금중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으며, 투자 재원의 상당 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음. 높은 금융비용으로 인해 많은 사업기회가 사장되고 있고, 신생기업이나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중소기업이 성장하기 어려운 사업여건임.

※ 골드만 삭스의 BRICs 보고서도 브라질의 성장 장애요인으로 낮은 투자율과 저축률 그리고 과중한 공공부채 및 외채를 지적하고 있음.

□ 브라질 코스트

-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사회 전반적인 부대비용을 의미하는 이른바 '브라질 코스트(복잡한 법체계, 고율의 세금, 높은 금융비용, 관료주의, 인프라 부족 등)'도 브라질 경제발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브라질은 경제계로부터 세계에서 세금의 종류가 가장 많고, 세율도 너무 높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노동자 고용의 부대비용도 너무 높아 저임금의 장점을 상쇄하고 있음.
- 이외에도 관료주의와 부패로 인해 정식 경로보다는 인간관계나 뒷거래를 통해 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 한편, 광활한 국토 면적에도 불구하고 철도 수송망이 미비하여 상품 운송의 대부분을 트럭 등 자동차에 의존하고 있고, 선진국에 비해 전력, 통신 등의 인프라가 미비되어 있음.
- 브라질 정부는 조세개혁, 노동개혁, 사회보장개혁 등 각종 개혁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사회간접자본 확충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으나, '브라질 코스트'가 완전히 사라지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II. 브라질 경제의 펀더멘탈(Fundamental) 변화

1. 브라질 경제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

- BRICs에 대한 시장진출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으나, 우리기업의 대 브라질 시장진출이 상대적으로 부진

<표> 2004년 기준 대BRICs 수출/투자 현황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수출(억불)	18	23	36	498
투자(백만불)	20	25	40	2,227

- 이는 기본적으로 브라질이 지구 반대편에 있어 왕래가 어렵고 시차가 정반대이며, 포르투갈어가 공용어이어서 의사소통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

- 서울과의 비행거리(마일) : 뉴델리(2,898), 모스크바(4,096), 브라질리아(13,502)
- 서울과의 시차 : 뉴델리(-4), 모스크바(-6), 브라질(-12)

- 이와 더불어 브라질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이 우리기업의 대브라질 투자 의사결정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

- 외채위기, 외환위기, 만성적인 재정적자, 고물가, 고금리, 1차 산업 위주의 취약한 경제구조, 심각한 빈부격차, 불안한 정치상황 등 브라질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만연
- 이는 브라질이 과거 수차례 경제위기를 겪을 때마다 대브라질 투자진출업체와 수출업체들이 큰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기 때문

- 그러나 브라질은 최근 수년간 모든 면에서 과거와 다른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브라질 경제의 펀더멘탈 변화

2. 최근 주요 펀더멘탈(Fundamental) 변화 내용

① 브라질은 세계 최대 외채국으로 3번의 모라토리엄 선언과 9번의 리스 케줄링을 겪은 나라인 데, 외채위기가 재발할 우려가 있지 않은가?

⇒ 총외채와 순외채 규모 모두 감소하고 있고, 수출호조와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증가로 외환보유액이 증가하는 등 외채상환능력도 크게 개선되어 외채위기 재발 가능성은 크게 낮아졌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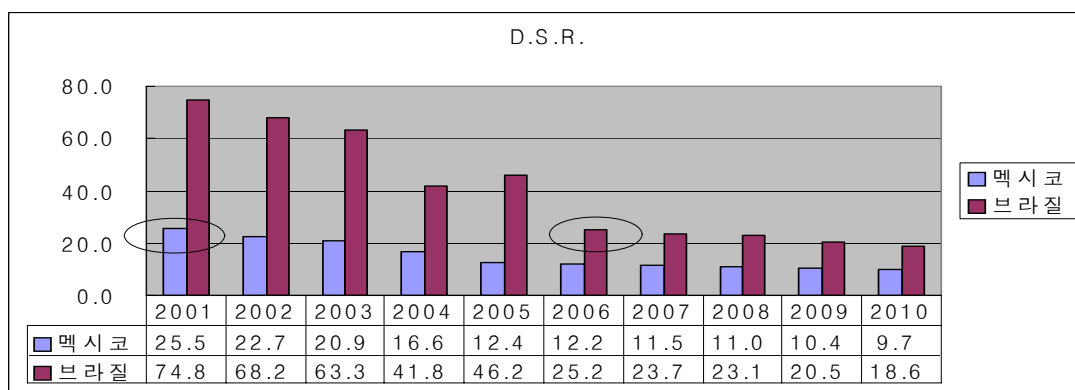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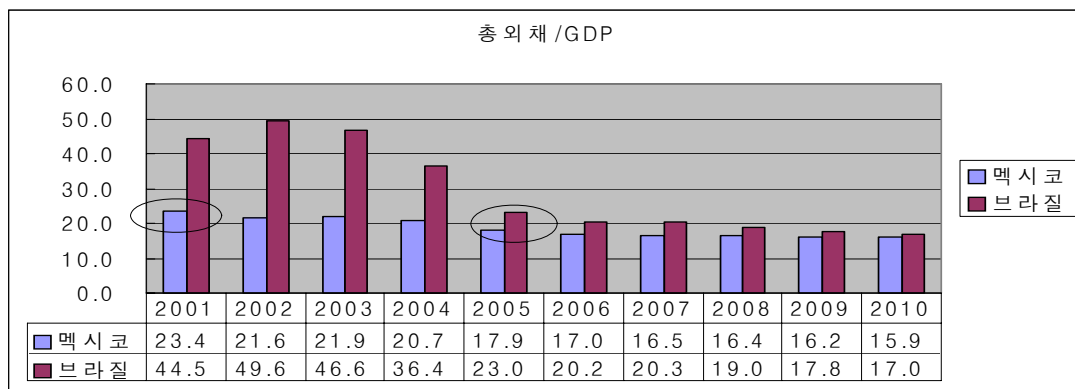
⇒ 금년 2월 28일 S&P는 브라질의 신용등급을 BB-에서 BB로 한 단계 상향조정

○ S&P는 최근 수년간 브라질의 외채구조가 크게 개선되어 환율과 이자율 변동에 따른 외채상환부담의 변동성도 낮아졌다고 평가

⇒ 브라질의 신용등급이 투자적격등급으로 상승할 가능성 충분

○ 멕시코의 신용등급이 투자적격등급으로 상승한 2002년과 현재 브라질의 주요 외채지표가 매우 유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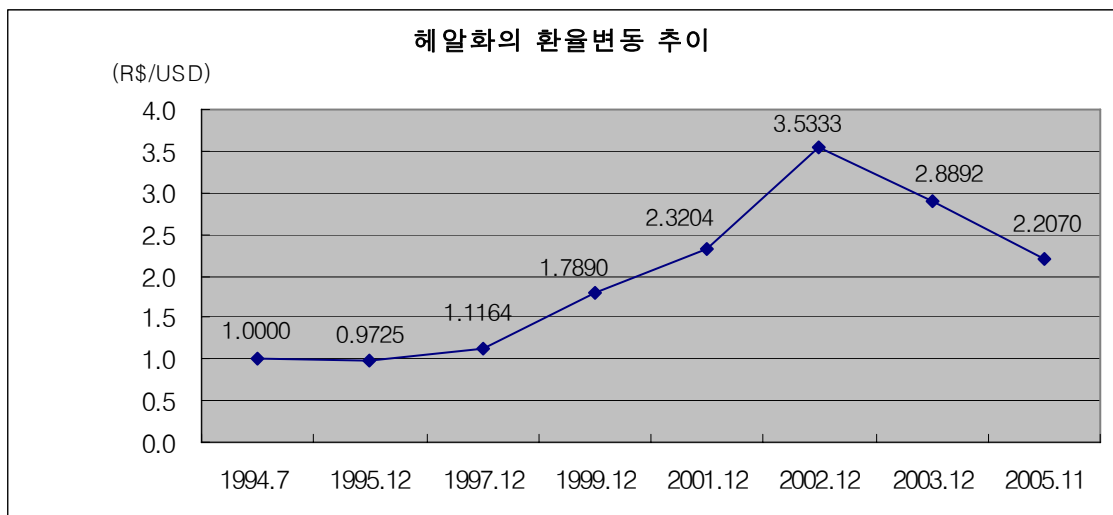
멕시코·브라질의 주요 외채지표



② 브라질은 1999년에 외환위기가 발생하였고, 2002년에도 헤알화가 크게 평가절하되는 등 환율이 불안한 나라가 아닌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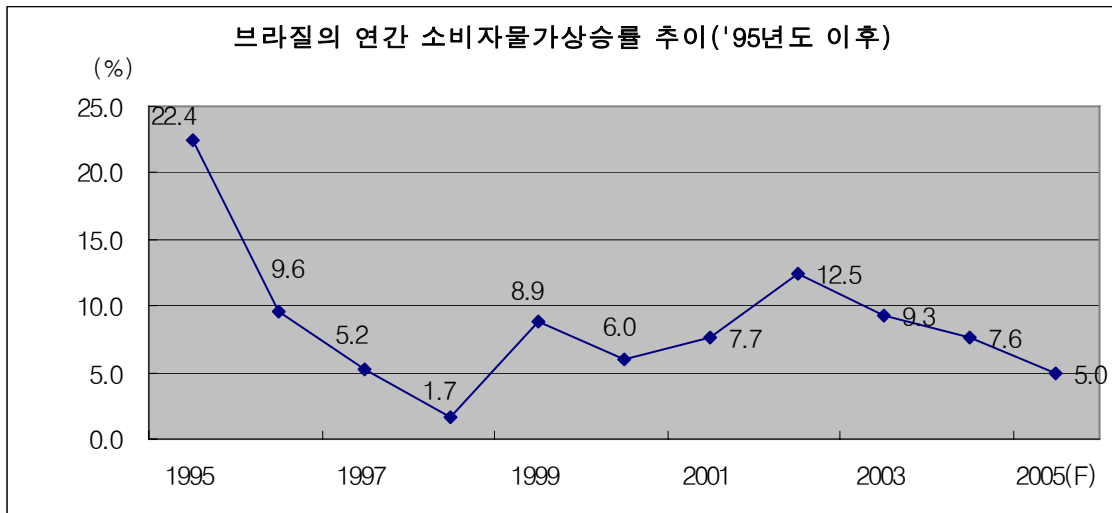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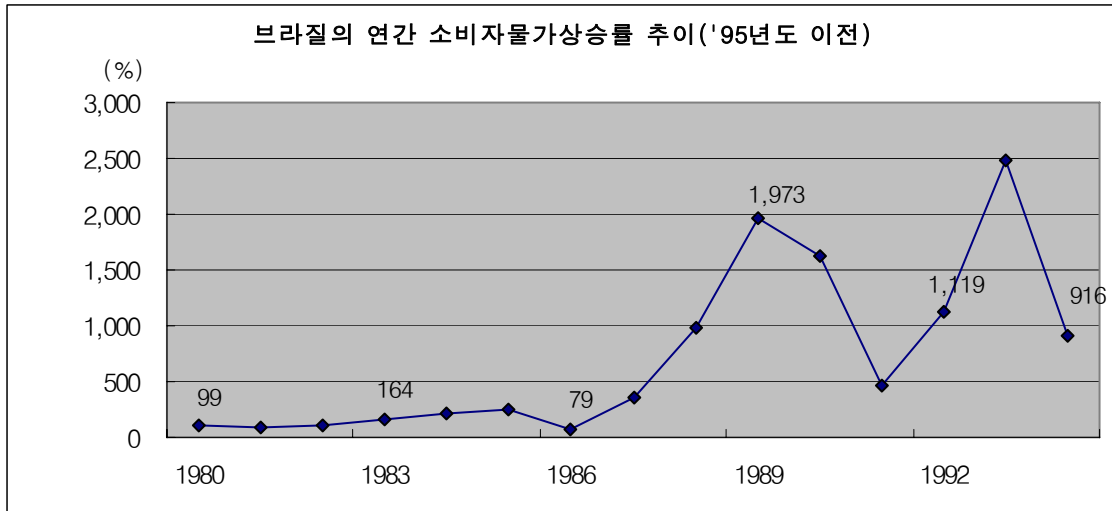
⇒ 최근 수년간 헤알화 환율은 오히려 세계 60개국 중 가장 높게 평가절상되었으며, 대부분의 경제연구기관들은 헤알화 환율이 향후 2.20 내지 2.60 수준에서 장기간 안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1999년 이후 자유변동환율제를 시행하고 있어 고정환율제를 시행하던 시기에 나타났던 정책변경으로 인한 급격한 평가절하의 위험도 매우 낮아졌음.



③ 브라질은 과거 1994년까지만 해도 물가상승률이 연간 2자릿수 내지 4자릿수를 기록했듯이 물가불안이 만연한 나라가 아닌가?

⇒ 1994년 7월 헤알플랜 이후 물가상승률은 한 자릿수대로 안정되었으며, 긴축재정·통화정책, 중앙은행의 독립성 강화, 인플레이션 목표관리제 시행 등 정부가 물가안정에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어 물가불안이 재연될 가능성은 매우 낮음.



④ 공공부채 규모가 크고 선거를 전후해서 선심성 재정지출을 확대하여 재정적자가 확대되고, 이로 인해 경제위기가 재연될 위험이 크지 않은가?

⇒ 기초재정수지가 흑자를 지속하고 있고, 경제성장 기조의 유지와 물가 및 환율 안정 등 펀더멘탈 강화로 향후 브라질의 재정수지는 보다 건전화될 것으로 전망됨.

브라질의 통합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추이

단위 : %

	2003	2004	2005. 1~10.
통합재정수지/GDP (%)	-5.08	-2.67	-2.41
연방정부	-3.99	-1.53	-3.27
지방정부	-1.74	-1.92	-0.05
국영기업	0.65	0.79	0.81
국가순채무잔액/GDP (%)	57.18	51.67	51.08
국내순채무	45.51	44.17	47.54
해외순채무	11.67	7.50	3.54

⑤ 브라질 경제가 붐-버스트(boom-bust) 형태를 보이는 등 경기부침이 심하고, 아직도 여타 신흥국가에 비해 경제성장세가 낮지 않은가?

⇒ 브라질은 경기과열을 우려하여 안정위주의 경제정책을 운용하고 있음. 컴퓨터, 핸드폰 등 정보통신기기 판매증가율이 2005년 6~8월 기준으로 전년대비 각각 45.9%, 51.9%, 52.9%에 이르는 등 소비가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어 오히려 상당기간 경기 연착륙 정책이 필요한 상황임.

⇒ 경기과열로 인한 물가상승을 우려한 브라질 중앙은행의 고금리정책과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정부의 긴축재정정책 지속으로 성장률이 2.6% 수준으로 낮아졌음. 그러나 지난해 4/4분기 이후 브라질 중앙은행이 계속해서 금리를 인하함에 따라 내수 및 투자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수출호조도 지속되고 있어, 금년에는 3.4~4.0%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전년 동기대비 GDP 성장률 추이

단위 : %

	2004년				2005년		
	1Q	2Q	3Q	4Q	1Q	2Q	3Q
GDP(시장가격)	4.00	5.09	5.89	4.72	2.80	3.99	0.97
GDP(실질가격)	3.99	4.70	5.29	4.23	2.57	3.77	0.76
농업	5.78	6.01	5.90	3.05	2.57	3.77	0.76
제조업	5.46	6.27	7.00	5.90	3.13	5.52	0.40
서비스업	2.35	3.21	4.09	3.58	2.18	2.62	1.53

브라질의 전기·전자·통신 부문 매출 추이

단위: 십억 헤알, 전년대비 증가율 %

구분	2002	2003	2004	2005 ^f
industrial automation	1,472	1,721 (16.9)	2,090 (21.4)	2,528 (21.0)
전기전자부품	5,916	6,876 (16.2)	8,697 (26.5)	10,002 (15.0)
industrial equipment	7,088	8,426 (18.9)	10,319 (22.5)	12,486 (21.0)
발전·송전·배전	5,114	4,449 (-13.0)	5,581 (25.4)	6,808 (22.0)
정보화기기	13,391	16,701 (24.7)	20,624 (23.5)	24,335 (18.0)
전기용품	4,649	4,593 (-1.2)	5,947 (29.5)	6,899 (16.0)
통신기기	7,431	8,760 (17.9)	13,006 (48.5)	16,908 (30.0)
가전제품	11,292	12,421 (10.0)	15,338 (23.5)	17,638 (15.0)
합계	56,354	63,948 (13.5)	81,601 (27.6)	97,603 (20.0)

⑥ 브라질은 1차 산품 위주의 경제구조로서 경제구조가 취약하여 1차산품의 국제시세가 하락할 경우 경제가 어려움에 처할 우려가 있지 않은가?

⇒ 브라질은 커피(세계 수출시장의 40%점유, 1위), 대두(세계 수출 1위), 오렌지(세계 수출 1위) 등 농산물과 철광석(세계 수출 1위), 보크사이트, 주석 등 광물자원의 세계 최대 생산국이자 수출국으로서 1차 산업 위주의 국가로 알려져 있음

⇒ 그러나 산업비중은 2004년 현재 1차 산업 12%, 제조업 37%, 서비스업 51%로 1차 산업의 비중이 그리 크지 않음.

⇒ 브라질의 1차산품 수출비중은 1964년 85.4%, 1970년 74.8%, 1980년 42.2%에서 최근에는 30% 이하 수준으로 낮아졌음.

⇒ 이에 따라 국제원자재시세 변동이 브라질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축소되었으며, 특히 최근에는 제조업, 그 중에서도 첨단산업의 발전이 두드러지고 있음. 제조업의 급속 성장과 함께 이제는 1차산품 비중이 높은 것이 경제구조의 취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성장 동력으로서 작용하고 있음.

브라질의 수출추이 및 수출구조의 변화

단위: 백만 달러

연도	총수출		부문별 비중(%)		
	금액	연(평균)증가율	1차 산품	반제품	완제품
1964	1,430	-	85.4	8.0	6.2
1970	2,738	1964~1970	74.8	9.1	15.2
1980	20,132	1971~1980	42.2	11.7	44.8
1990	31,414	1981~1990	27.8	16.3	54.2
1995	46,506	1991~1995	23.6	19.7	55.0
2000	55,086	1996~2000	22.8	15.4	59.0
2001	58,223	2001	26.4	14.2	56.5
2002	60,362	2002	28.1	14.9	54.7
2003	73,084	2003	29.0	15.0	54.3
2004	96,475	2004	29.6	13.9	54.9
2005. 11	107,413	2005. 11	29.7	13.5	54.7

⑦ 브라질은 빈부격차가 큰 나라로서 시장규모가 제한적이지 않은가?

⇒ 브라질은 GDP 세계 14위, 인국 1억 8천만 명의 신흥경제대국으로 빈부격차에도 불구하고 시장규모가 매우 큼.

⇒ 브라질의 이동전화가입자 수는 2005년 10월 말 현재 총인구 1억 8천만 명 중 약 45%에 해당하는 81.2백만 명에 달해 우리나라의 38백만 명 수준 보다 월등히 많은 세계 5위의 국가인 것이 말해 주듯이 결코 작은 시장이 아님.

⑧ 최근 남미의 좌파 열풍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인 데, 브라질도 정치 불안이 경제를 크게 좌우하는 나라가 아닌가?

⇒ 최근 룰라 대통령의 탄핵위기에도 불구하고 국제채권시장에서 브라질 국채에 대한 가산금리가 큰 변동을 보이지 않았으며, 헤알화 강세 기조도 지속되었음.

⇒ 룰라 정부의 출범 이후에도 이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유지되는 등 브라질 정부는 정권 차원을 넘어 일관성 있는 거시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3. 결론 : 브라질 경제 현실에 대한 인식 전환 필요

- 브라질 경제는 건전한 거시경제정책과 시장개방정책을 적극 추진하면서 경제의 **편더멘탈이 강화**되었고, 내수와 수출이 모두 호조를 보이면서 경제성장 기조도 이어지고 있음.
- 브라질은 2004년 기준으로 이미 세계 **14위의 경제대국**이며, 개도국 중 중국에 이은 세계 **2위의 FDI 유입국**이기도 함. 특히, 수출주도의 경제성장정책과 시장개방정책을 적극 추진함에 따라 브라질 경제는 앞으로도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됨.
- ※ 로드리고 데 라토 IMF 총재 : '브라질이 현재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순간을 지나고 있다' (IMF 차관 조기상환 발표 직후)
- ※ UNCTAD의 글로벌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 중국, 미국, 인도, 러시아에 이어 세계 5위의 투자선호 대상국

III. 외국인투자 환경

1. 외국인투자 정책

□ 외국인투자 유치에 적극적

- 브라질은 과거 경제성장에 필요한 투자재원 조달을 위해 외자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였으며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정책도 자국의 경제발전과 부합되면 내·외국인투자를 원칙적으로 차별하지 않는다는 유연한 입장을 견지해 왔음.
- 군정시절에는 수입대체 산업화정책을 추진하면서 특정산업에 대해서는 각종 법규를 통하여 수입 및 외국인투자를 제한한 바 있음.
- 그러나 1990년대 들어 대외문호개방과 아울러 공기업 민영화와 외국인에 대한 증권시장 투자 허용 등 적극적인 투자유치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외국인투자 우대 및 규제조치

-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연방정부 차원의 조세혜택은 없음.
- 외국기업은 투자인센티브 수혜에 있어 국내 기업과 동등 대우를 받음.
- 투자인센티브는 수출기업, 특별장려산업, 저개발지역에 집중되어 있음.
- 지방정부는 개별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인센티브 수혜를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지역별 인센티브

- 투자인센티브를 수혜받을 수 있는 지역은 북부 아마존지역, 북동부 저개발지역, 마나우스 자유무역지대, 17개의 수출가공무역지대(ZPE)임.
- 아마존 개발관리청(ADA), 북동부지역 개발관리청(ADENE), 마나우스 자유무역지대 관리청(SUFRAMA)이 세금감면, 금융지원 등의 지역별 투자인센티브를 관장하고 있음.

- 마나우스 자유무역지대 입주기업은 원자재 수입관세(연방세) 감면, 州 부가가치세(ICMS) 면제, 市 부동산세(IPTU) 감면 등 다양한 세제혜택이 부여됨.

□ 지방정부의 인센티브

- 州 또는 市정부도 개별적인 투자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특히 Bahia州는 Bahia州 개발프로그램(Probahia)을 통해 산업, 농업, 광업, 전력생산 분야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州부가가치세(ICMS) 일부(州수도 Salvador지역 50%, 기타지역 75%)를 장기저리 산업융자로 대체해 주고 있음.
- 그러나 최근의 주정부 재정악화로 주정부 차원의 인센티브 부여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임. 이러한 추세를 반영, 브라질 북부 및 중서부 지역에 대한 자동차 산업투자도 州별 인센티브 부여여부에 따라 잦은 변동을 보이고 있음.
- 투자 장려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은 브라질 북동부은행(BNB) 등 지역개발은행의 증장기금융을 이용할 수 있으며, 우선산업 분야에 투자하는 기업은 국가경제사회개발은행(BNDES)으로부터도 차입이 가능함.
- 자동차 이외의 농업, 중공업, 제철, 조선, 화학, 펄프, 제지 등 우선산업분야에 투자하는 기업이나 수출기업 또는 수산업, 산림업, 관광업에 투자하는 기업은 상기 인센티브를 신청할 수 있음.

□ 외국인투자 규제조치

- 외국인투자 금지업종은 항공, 출판, 방송, 어업, 복권, 알코올 연료 자동차 사업, 원자력 발전 등임.
- 2002년에는 라디오, 텔레비전에 대한 외국인 지분투자를 허용(외국인 지분율 상한은 30%)
- 금융기관 신설은 사전에 중앙은행에 투자계획서를 제출하여 브라질 국가통화위원회의 심의와 대통령의 결재가 있어야만 가능함. 다만, 브라질내 외국인은행의 지분을 매입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으며 외국은행은 현지 투자은행의 지분을 30%까지 소유할 수 있음.

- 출자비율에 대한 법률상의 규정은 산업분야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브라질 정부는 국내자본을 다수 지분으로 한 합작기업 형태를 장려하고 있음.
- 어업(외자비율 40% 이하), 항공업(2/3 이하), 해운업(50% 이하), 금융업(30% 이하) 등에 대하여 각각 규제, 행정지도를 하고 있음.

2. 외국인투자 형태 및 절차

□ 개 요

- 브라질내 외국인투자는 1995년 헌법개정 이후 외국인투자 금지 및 제한업종(항공, 출판, 방송, 어업, 복권, 알코올 연료 자동차 사업, 원자력 발전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자유로우며 기존기업의 취득 혹은 신규 회사의 설립으로써 이루어지고 있음.
- 투자규제 대상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회사설립시 외국인투자에 대한 정부의 사전허가가 요구되지 않음.
- 브라질에는 통합적인 외국인투자 법규는 없으며 투자절차 진행단계마다 각종 법률, 법령, 중앙은행 결정 등의 형식을 통하여 외국인 투자를 통제 관리하고 있음.
- 현행 외자관계법 중 외자의 유출입을 통제하는 기본법률로서 외국자본법(법률 제4131호(1962.9.3))과 이를 개정한 법률 제4390호(1964.8.29) 및 대통령령 제 55762호(1965.2.17)가 있으며, 기술도입 및 이전에 관해서는 법률 제5772호(1970년)로 공포된 '산업재산권법'이 있음.
- 상기 법률 제4131호는 외자도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외자도입 이후 영업활동 결과로 얻은 이익금의 대외송금 등에 관한 사항을 주로 규정하고 있음.

□ 외국인 투자의 전자신고등록제도(RDE)

- 모든 외국인투자는 중앙은행에 등록해야 함. 등록증은 나중에 이익금이나 투자원금을 중앙은행의 별도 허가 없이도 해외로 송금할 수 있는 증명서 역할을 함. 또한, 로열티나 기술이전을 수반하는 외국인투자는 반드시 INPI(특허청)에 등록해야 하며 증권투자의 경우에는 브라질에 대리인을 두고 증권위원회(CVM)에 등록해야 함.
- 중앙은행은 기존의 외국인 투자등록제도를 확대 개편하여 외자의 전자신고등록제도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외국인 투자의 전자신고등록제도 (Registro declaratorio eletronico - RDE)는 4가지 형태의 등록제도로 구성되어 있음.
 - (1) 외국인 직접투자(IED)
 - (2) 외국인 간접투자(PORTFOLIO)
 - (3) 외자금융운용등록(ROF)
 - (4) 브라질의 해외투자(CBE)

□ 외국인직접투자 전자등록제도(RDE-IED)

- 브라질은 2000년부터 외국인투자등록을 인터넷을 통해 중앙은행에 직접 하도록 하고 있음. 법정 등록 기간은 30일 이내임.
 - o 환매매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외화유입의 경우 국내화로 환전되는 날, 또는 주식이나 지분의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기타의 경우 회사가 의결행위한 날부터 30일 이내.
- 투자등록 절차는 중앙은행의 RDE-IED 등록으로 모두 완료됨. 과거에는 중앙은행이 외자등록이 완료되면 외국투자자에게 투자등록증을 발급해 주었으나 현재는 RDE-IED 등록으로 진행됨.

□ 외자금융운용등록(ROF)

- 외자금융운용등록이란 전자신고등록제도(RDE)의 한 형태로 외국으로부터 자본이 들어오는 경우 중앙은행에 등록하는 제도를 말함.

- 모든 금융활동에 대한 신고이므로 외자금융운용등록에 신고해야 하는 금융활동에는 외국차관도입과 수입금융이외에도 이와 유사한 모든 금융활동이 포함됨.

□ 등록통화

- 외자등록은 브라질에 유입되는 통화로 등록됨. 즉, 한화나 미화로 들어오면 한화나 미화로 등록되며,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 (1) 현금투자 : 해당 통화
- (2) 수입파이낸싱 (무역금융) : 채권자의 주소 또는 본사소재지의 통화
- (3) 현물투자 : 투자자의 주소지 또는 본사소재지의 통화
- (4) 채투자의 경우 : 국내통화와 이익송금이 될 국가의 통화로 같이 등록

□ 현지법인 설립

- 브라질은 지사 설치가 곤란한 경우가 많으므로 대부분 현지법인 설립을 통해 진출하고 있음.
- 외국인투자시 현지법인 설립형태는 크게 주식회사(공개회사, 비공개회사), 유한회사, 비영리법인(Sociedade Civil) 등으로 나눌 수 있음.
- 외국인투자기업은 주로 유한회사 설립방식으로 진출하고 있음.
- 주식회사는 가장 일반적인 기업형태로서 회사법의 규제를 받으며, 주식의 공개여부에 따라 공개회사와 비공개회사로 구분됨. 공개회사의 경우 증권거래소에 주식을 등록하여야 하며, 증권시장 등을 통하여 공개적으로 주식의 이전이 이루어짐.
- 주식회사의 경우 회사정관을 작성하여 국가산업재산권협회(INPI)에 등록한 후 최소 2인 이상의 주주가 자본금을 납입하여야 함. 최소한 10% 이상을 현금으로 예치하고 주주총회시 이를 기록하여야 함.
- 주주총회 의사록 및 정관을 관보와 일간신문 등에 게재함으로써 회사설립절

차를 마치게 되며, 그 기간은 통상 1개월이 소요됨.

- 유한회사는 소규모 자본의 경우에 많이 이용되고 설립절차가 간편하며, 유한회사의 한 형태인 자본개방회사(Companhia de Capital Aberto)의 경우 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 혜택이 주어짐. 유한회사의 경우 다른 출자자의 동의없이 자기의 지분을 매각할 수 없으며, 우선주나 사채의 발행을 금지하고 있음.
- 유한회사의 설립절차는 주식회사와 유사한 절차를 거쳐 설립되고 있으나 그 과정은 단순하며, 세금을 포함한 제반비용은 주식회사의 경우와 비슷하게 소요됨. 그러나 자본금의 일정액 은행 예치의무 및 출판물을 통한 회사 설립사실 공표의무가 면제되며, 설립소요기간은 약 2주간임.
- 비영리법인은 주로 회계, 엔지니어링, 산업디자인 등 전문용역 제공을 위하여 설립되고 있음.
- 현지법인 설립절차는 아래와 같음
 - (1) 현지법인설립등기 : 주 상업등기소(JUCESP)에 현지법인설립등기
 - (2) 은행구좌개설 : 설립 투자금 송금
 - (3) 외자등록 : 중앙은행에 외자등록
 - (4) 주 또는 시정부등록 : 주 또는 시 유관 정부기관에 필요사항 등록
 - (5) 비자신청 : 노동부에 비자발급 신청. 투자금의 중앙은행등록 현지법인의 설립정관을 상업등기소에 등록하고 주 국세청으로부터 법인납세번호(CGC)를 발급받으면 현지법인의 설립절차를 완료하게 됨.
- 이때부터 현지법인은 법인명으로 은행구좌도 개설할 수 있고 임대계약도 체결할 수 있으며, 모든 법률행위가 가능함. 은행구좌를 통해 투자금이 입금되면 즉 현지법인의 브라질구좌로(환계약을 통해 브라질화폐로 전환 후) 입금되면 그때부터 30일 이내에 중앙은행에 외국인투자등록을 함.
- 중앙은행등록은 자본철수나 과실송금을 보장해 주는 법적 절차인 동시에 노동부에서 영주권발급 신청시 필수적인 준비서류가 됨. 그리고 현지법인 운영은 반드시 브라질 거주인, 즉 영주권 이상자가 운영해야 함.

- 따라서 외국의 법인이나 외국인이 주주인 경우 그 운영권을 브라질 거주 대리 경영인들(Delegate Manager)에게 위임해야 함.
- 만일, 본사 파견 직원이 영주권을 취득한다면 동직원은 현지법인의 경영인과 부재주주(예컨대 본사)의 대리인 역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으며, 영주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현지법인의 자본금이 최소 20만불 이상이 되어야 함.

□ 지사 설치

- 브라질내 외국기업의 지사는 회사설립시 장기간이 소요되며, 이익금의 송금, 재투자 등에 대한 제한 및 고율의 소득세(25%)가 부과되고 있음. 지사형태로의 외국인투자는 주로 판매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되며 일반기업들과 동일하게 과세가 이루어짐.
- 지사는 모기업과 동일한 이름(지사명칭에 do Brasil 또는 para o Brasil 삽입)을 사용하여야 하며, 지사의 대표자는 주어진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권한을 갖고 있고(브라질 국적이 아니어도 됨) 등록해야 함.
- 지사 설치는 관계당국에 지사 설치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하며 통상 6개월이 소요됨. 지사는 설치등기 등 모든 지사 설립절차를 완료하고 그 사실을 관보지 신문에 공표한 후 업무를 개시하여야 함.
- 지사를 설립하기 위하여는 모회사 정관, 지사설립을 의결한 이사회 의사록, 납입자본금 등을 포르투갈어로 기재한 신청서를 해당지역 상업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함.

□ 임직원의 장기 체류 비자 취득

- 브라질 투자 진출시 주재 상사원의 장기 체류 비자 취득이 용이하지 않음.
- 장기 비자 취득에 통상 6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지사장 또는 임원으로 부임하는 경우 영주사증을 취득하나 일반 직원으로 부임하는 경우 유효기간 2년(1회 연장 가능)의 임시거주사증을 취득함.

IV. 한국기업의 對브라질 투자진출 사례와 전략

1. 대브라질 투자 현황

□ 2005년 대브라질 투자 급증세로 전환

- 한국 기업의 對브라질 투자는 1980년대 말까지는 불과 2건(2백만 달러)에 불과했으나 1990년대 급속한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2005년 말 현재 잔액기준 57건, 4억 4,430만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음.
- 1995년 헤알플랜 이후 인플레이가 월 2% 수준으로 억제되고 1998년까지 경제가 안정적인 성장을 기록함에 따라, 동 기간 중 삼성, LG 등 대기업들의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음.
- 1998년 이후 외환위기 및 금융불안이 지속되고 내수경기가 침체됨에 따라, 한국 기업들의 대 브라질 투자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었으나, 2005년 한 해 동안에는 14건 1억 4,392만 달러가 투자되는 등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음.
- 브라질로의 투자는 주로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마나우스 지역에 많은 기업이 진출해 있고, 대기업 중심의 단독투자, IT 기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음.

대브라질 해외직접투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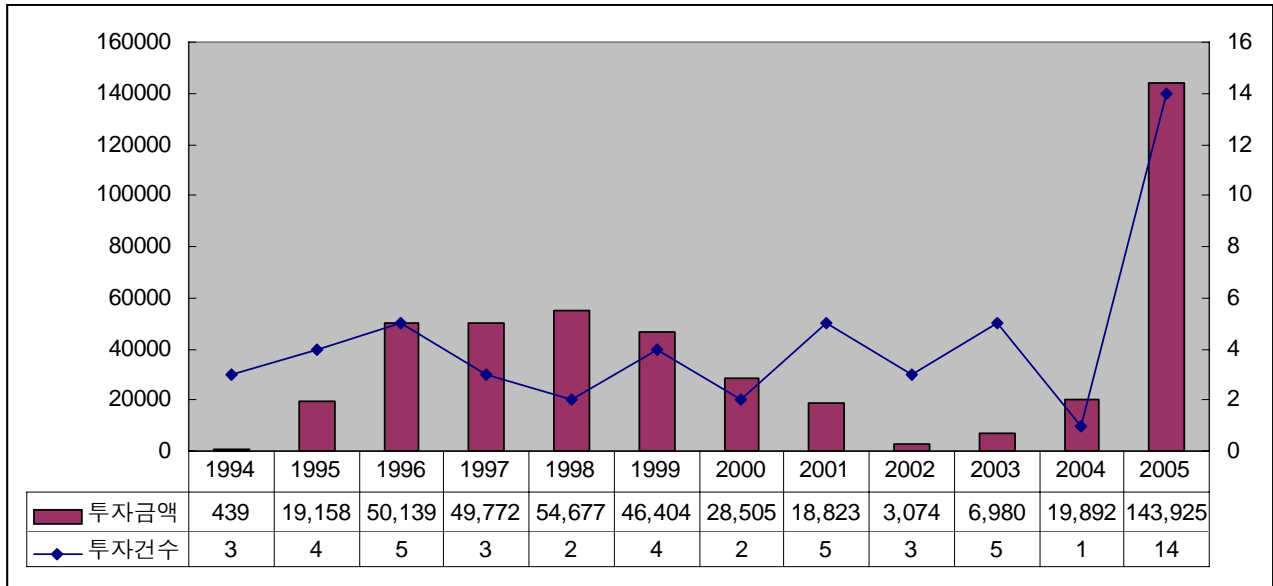
단위 : 천달러

	신고건수	신고금액	투자건수	투자금액
1994	4	3,439	3	439
1995	5	19,863	4	19,158
1996	6	164,511	5	50,139
1997	8	204,601	3	49,772
1998	2	73,260	2	54,677
1999	4	114,505	4	46,404
2000	2	5,483	2	28,505
2001	6	40,872	5	18,823
2002	3	14,430	3	3,074
2003	5	8,350	5	6,980
2004	1	23,414	1	19,892
2005	14	216,549	14	143,925
합 계	68	916,508	57	444,296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연도별 대브라질 투자건수 및 투자금액

단위 : 건, 천 달러



2005년 우리기업의 대브라질 투자 실적

단위 : 천 달러

현지법인명	신고건수	신고금액	투자건수	투자금액
CJ DO BRASIL LTDA	1	60,000	1	6,150
LG ELECTRONICS DE SAO PAULO LTDA.	0	50,000	0	50,000
SAMSUNG ELECTRONICA DA AMAZONIA LTDA(SEDA)	1	45,000	1	45,000
SK DO BRASIL, LTDA.	0	38,000	0	23,999
PANTECH BRASIL COMERCIALIZACAO DE CELUFARES LTDA.	1	14,211	1	11,111
CELLCOM BRASIL IND E COM. DE BATERIAS PARA CELULARES LTDA.	1	2,000	1	680
SAMKWANG BRASIL	1	2,000	1	1,947
USINA SIDERURGICA DO CEARA LTDA	0	1,805	0	1,805
HYUNDAI CONSTRUCTION DO BRASIL TDA.	0	1,050	0	1,200
AUTONICS DO BRASIL COMMICAL IMPORTADORA EXPORT ADORA LTD	1	700	1	400
SOLMINE COMMUNICATIONS E CONSULTORIA LTDA	1	661	1	471
LG CNS BRASIL SERVICOS DE T.I. LTDA.	1	500	1	500
LG CHEM BRASIL, LTD.	1	250	1	250
CLARK MATERIAL HANDLING BRAZIL, S.A.	0	162	0	202

COSTECH ENG LTD.	1	55	1	55
CONTECOES MADRUGADA LTDA	1	53	1	53
ALSPAC TRANSPORTES INTERNACIONAIS AND AGENCIAMENTO LTDA.	1	50	1	50
SSC COMERIO SOLUCOES EM SOFTWARE LTDA.	1	50	1	50
ON GAMES	1	2	1	2
	14	216,549	14	143,925

우리기업의 대브라질 투자법인 현황(1000만 달러 이상)

현지법인명	신고건수	신고금액	투자건수	투자금액
SAMSUNG SDI BRASIL CO., LTD.	1	148,000	1	100,520
SAMSUNG ELECTRONICA DA AMAZONIA LTD.	1	113,400	1	37,000
LG ELECTRONICS DE SAO PAULO LTDA.	1	83,960	1	83,960
SK DO BRASIL, LTDA.	1	75,012	1	53,903
CJ DO BRASIL LTDA	1	60,000	1	6,150
MEDISON DO BRAZIL LTDA.	1	57,258	1	2,258
LG ELECTRONICS DA AMAZONIA LTDA	1	47,650	1	46,950
SAMSUNG ELECTRONICA DA AMAZONIA LTDA(SEDA)	1	45,000	1	45,000
KOBRASCO	1	38,500	1	26,930
PANTECH BRASIL COMERCIALIZACAO DE CELUFARES LTDA.	1	14,211	1	11,111
BETHANY COMMUNICATIONS IMP.& EXP. LTDA.	1	11,267	1	2,147

2. 최근 대브라질 투자 사례

(1) 동국제강의 브라질 슬래브 공장 투자

가. 투자개요

- 투자형태 : 합작투자
- 투자지역 : 브라질 북동부 Ceara주, Pecem산업단지
- 현지법인명 : Usina Siderurgica do Ceara
- 사업내용 : 슬래브 생산

나.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 2001. 4 : 동국제강현지법인(USC) 및 브라질 Ceara 주 Protocol 체결
- 2002. 3 : SACE(이태리 수출보험공사) 용자 예비승인
- 2004. 3 : BNDES(브라질사회개발은행) 용자 및 지분참여 의향서 서명
- 2005. 4 : 전력공급계약 등 주요 계약서 체결
- 2005. 5 : 투자의향서(MOU) 서명
- **2005. 12. 15 : 착공식 개최**
- 2008. 상반기 : 완공 및 시험가동
- 2009. 1 : 상업생산(풀가동)

다. 투자 동기

- 동국제강은 연 570만 톤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가장 큰 후판제조회사이며, 가장 큰 슬래브 구매회사중의 하나임. 연간 약 3백만 톤의 후판을 생산하여 국내 조선사들에게 공급(국내 시장점유율 약 42%)하고 있는데, 현재는 동 공정 전 단계인 슬래브를 일본 JFE스틸과 브라질 CST, 호주 BSL, 영국 코러스, 중국 사강집단에서 수입하고 있음.
- 동국제강은 최근 국제 철강가격이 급등하여 슬래브 수출업체들이 자체수요 충족 후 판매하는 정책을 펼침에 따라 안정적인 원자재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며, 중국을 비롯한 각국 철강업체들 간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원가절감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임.

- 안정적인 원자재 확보 및 가격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슬래브를 직접 생산·조달할 수 있는 본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됨. 동 프로젝트는 한국철강업계 최초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한 투자임과 동시에 최초로 해외에서 쇳물과 철강 반제품을 생산하는 프로젝트임.

라. 프로젝트 파트너

- 동국제강 : Ceara Steel의 운영을 담당하며, 슬래브 생산의 50% 구매 예정
- DANIELI(이탈리아 철강설비제작업체) : 설비공급(DANAREX 공법)
 - * DANIELI :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철강 플랜트 기업으로 세계 5위안에 드는 후판 전문 철강 이태리 기업임. 이태리, 독일, 미국,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등과 같은 산업화된 국가에 자체 특수전문화 기술을 통하여 세계적 명성을 유지하고 있음.
- CVRD(브라질 철강생산업체) : 철광석 펠릿(Pellet) 공급(250만톤/연)
 - * CVRD(Companhia Vale do Rio Doce) : 철광 생산 및 수출부문에서 세계 제1위 기업이며, 구리, 칼륨, 알루미늄 등도 생산하고 있는 친환경적인 기업임.
- Ceara 주정부 : 인프라 제공 및 각종 혜택 제공

마. 투자자금

□ 투자자금 예상내역 : 총 소요자금(750백만불)

- 대출금 : 485백만불(프로젝트 파이낸싱)
- 출자금 : 265백만불(동국제강, DANIELI, CVRD, BNDES Par)

Financing 구조

(단위 : 백만 달러)

구 분	자금원	자금원	금액	비고
출자금	Shareholder	동국제강본사	90	
		DANIELI	45	이탈리아 철강설비제작업체
		CVRD	25	브라질 철강생산업체
	브라질은행	BNDES Par	105	Subordinated debt (BNDES 자회사)
	소 계		265	
차입금	MCC-SACE		430	이탈리아 ECA
	BNDES		55	브라질 정책금융기관
	소 계		485	
합 계			750	

바. 동 프로젝트 주요 경쟁력 요인

- 각기 다른 제철산업분야 3곳이 출자함에 따라 시너지 효과 기대 가능

* 세계 최대 철광석 공급사인 브라질의 CVRD가 철광석을 전량 공급하고, 철강 설비업체인 다니엘리(Danieli)사가 직접환원제철 신기술을 제공, 고품질의 슬래브 생산이 가능할 것임. 슬래브 생산량 중 50%는 동국제강 본사 앞으로 판매 후, 한국선박제조기업에 후판을 공급할 예정임.

- Pecem Potruario 산업단지내 위치 및 항구이용이 가능한 인프라 시설

- 풍부한 천연자원 및 장기공급계약 체결

* CVRD : 철광석, Petrobras : 천연가스, CHESF : 전력공급 등

* Carajas, Para에 있는 철광 산지에서 기초 원자재를 공급할 예정임.

- 안전하고 경쟁력 있는 시장 보유

* 생산량의 100% 중 50%는 중장기계약을 통하여 아시아, 미국, 유럽 등으로 수출할 계획이며 50%는 한국의 동국제강 본사로 수출할 계획임.

- DANIELI사의 고품질의 설비 설치 및 혁신적인 기술처리공정 가능
- 동국제강의 철강생산 분야에서 50년 이상의 노하우 및 경험 보유
- Ceara 주정부의 높은 신뢰 및 전폭적인 지원

사. 주요 투자 기대효과

- 총 투자금액 : 750백만불(해외자금 80%)
- 공장건설기간 직접인력채용 : 3,400명
- 생산활동 직·간접 인력채용 : 1,600명
- 브라질 철강수출증가율 : 13%(150만톤/연)
- 수출액 : 4억불/연
- Ceara 주 경제성장률 : 4.5%
- 산업단지 예상투자액 : 6억불
- 친환경산업처리 기술
- 외국인 투자유치 및 브라질 북동부의 개발 등

(2) 팬택의 브라질 판매법인 설립

가. 투자개요

- 설립일 : '05. 4. 16
- 투자형태 : 단독투자
- 투자지역 : 상파울루
- 현지법인명 : Pantech Brasil Comercializacao de Celulares Ltd
- 사업내용 : 휴대폰 판매
- 투자금액 : 신고금액 14,211천 달러, 투자금액 11,111천 달러

나. 투자 동기

-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남미공동시장(Mercosur) 진입을 위한 판매전진기지 확보를 위하여 브라질에 법인 설립

다. 생산운영방식

- 초기투자위험을 최소화하고 위탁생산업체의 Tax Discount know-how를 활용하기 위하여 초기에는 전문 위탁생산업체를 활용, 판매할 계획이며, 사업이 안정화되는 시기에 독자적인 공장을 설립 운영할 계획임.
- 본건 사업구조는 위탁가공업체인 Celestica사가 휴대폰의 원부자재를 (주)팬택 본사로부터 수입, 휴대폰을 제조하여 완성품을 (주)팬택 브라질 판매법인에 판매하고, (주)팬택 브라질 판매법인은 이를 다시 브라질 통신회사들 앞으로 판매하는 형식의 사업구조임. 현재 위탁생산업체인 Celestica사와 제조 본계약 체결이 진행 중에 있음.
- 핸드폰 생산장비는 위탁가공업체인 Celestica사가 필요한 모든 장비를 투자할 경우 임가공비가 상승하므로 팬택 브라질법인이 생산장비를 구매하여 Celestica사 앞으로 대여해 주는 사업구조임.

라. 현지 영업환경

- '05. 7월 브라질 통신기관인 Anatel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브라질의 휴대폰 사용자수는 약 7,340만 명이며 '05년 1월에서 5월에 판매된 휴대폰 규모는 810만대로서 '04년 대비 1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이동통신 보급률은 '04년 36%에서 '07년에는 49%까지 성장이 예상됨. 성숙기 도입 이전의 과도기 시장으로 중고가 폰으로의 교체수요 발생 시기임.
- 이동통신 단말기의 연평균 예상 수요량은 '05년부터 '07년까지 약 2천 8백만대로 이에 따라 신규 수요 및 기능이 강화된 핸드폰으로 교체 수요가 확대될 전망이다.
- 주요 이동통신 사업자는 Vivo, Claro, TIM, Oi, Amazonia, Telemig, Brazil Telecom이 있으며, 이 중 유일하게 CDMA 사업을 전개하는 Vivo의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음.
 - o '04년/말 기준 사업자 시장점유율 : Vivo 42.8%, Claro 20.6%, TIM 18.0%, Oi 9.9%
- 중저가(US\$150 이하) 제품이 전체 수요의 약 70%를 점유하고 있으며, 제품 자체보다는 가격 위주 수요가 대부분임.

<주요 경쟁사들의 브라질 시장점유율 현황>

업체명	Motorola	Nokia	Siemens	Samsung	LG	Sony, Ericsson
시장점유율	30%	30%	12%	10%	9.5%	3%

* '04년도 물량기준임.

(3) CJ의 라이신 공장 투자

가. 투자개요

- 투자형태 : 단독투자
- 투자지역 : 상파울루주 삐라시까바(Piracicaba)시 이따삐루(ITAPERU) 지역
- 사업내용 : 라이신(사료 첨가제) 생산
- 투자금액 : 공장건축 2.13억 헤알(약 1억불), 2015년까지 총 5억불 투자
(자본금 : 6천만불)
- 공장 착공일 : 2006년 3월 21일

나. 추진경과

- 2005. 6. : CJ와 바르자스 네그리 시장, 공장설립계획 프로토콜 서명
- 2006. 1. 24 : 상파울루주 환경보호청(Consema), 공장 건설 승인

- * 공장 가동을 위한 에너지공급을 위해 국가에너지국(ANEL), 상파울루 전력 공급회사(CPFL), 도시가스공급회사(COMGAS)들과의 협력을 목표로 삐라시 까바시는 이미 루시아노 알메이다 상공부 차관과 협의 완료

- 2006. 3. 21 : 착공식 개최

- * 상파울루주 삐라시까바(Piracicaba)시 이따삐루(ITAPERU) 지역에서 개최된 동 착공식에는 제라우도 알키민(Geraldo Alckmin) 상파울루 주지사, 바르자스 네그리(Barjas Negri) 삐라씨까바시 시장, CJ 김진수 회장, 유행준 상무, CJ 브라질법인 김덕희 사장, 윤기한 부장, 대한민국 대사관 최종화 대사 등이 참석

다. 투자 내용

- 투자규모 : 공장건축 2.13억 헤알(약 1억불), 2015년까지 총 5억불 투자
- 입지 : 상파울루주 삐라시까바(Piracicaba)시 이따삐루(ITAPERU) 지역, 제랄도 바호스 고속도로(SP-304)와 8분 거리

- 공장건설기간 : 약 18개월(연인원 1,400명, 2007년 9월 완공 예정)
- 고용규모 : 1차 약 250명, 2015년까지 총 2천여 명
- 공장규모 : 대지 98만m², 건물바닥면적 약 5만m²
- 생산물 : 필수 아미노산의 일종인 리지나(lisina)를 연 57,700톤 생산(사탕수수에서 채취)하여 조류와 돼지들의 사료로 판매될 예정. 영업 첫 해 매출목표는 1억불이며, 이중 70%를 미국으로 수출할 계획임.
- 본 공장은 CJ의 인도네시아, 중국 공장과 함께 CJ의 전세계 82개 지사를 3대 구분하는 세계 3대 바이오 거점이 될 예정이며, 생산규모는 CJ 중국공장과 비슷한 하루 170 카트(CARRETA) 수준임. 모든 생산품은 산토스 항구를 통해 운반될 예정임.

라. 자금조달계획

- 1차 투자분 총 1억불 중 본사 자기자금출자 6천만불 외에, 약 4천만불의 시설 자금 및 운전자금을 2006년 4/4분기 중 차입하여 충당할 계획임.
- 이후 순차적으로 투입될 추가투자자금은 현지법인 독립채산제 원칙에 따라 지속적으로 차입금에 의존할 것으로 예상됨.

마. 입지 여건

- 공장부지는 총 1백만불의 저렴한 비용으로 구입되었으며, 또한, 리지나 생산을 위한 원료인 사탕수수 생산 중심지에 자리 잡고 있는 장점이 있음.
- 빼라시까바시는 현재 유니노르찌(Uninorte)공업단지 및 유니레스찌(Unileste)공업단지 외에 CJ 공장이 위치한 이따빠루지역에 총 5백만m² 규모의 3번째 공업단지를 향후 2년 내에 조성할 계획으로 있음. 동 계획은 2005년에 이미 상원을 통과하였으며, 한국 업체들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음.

바. 투자인센티브

- 주정부는 투자 인센티브와 판매 전략에 협조를 약속하고, 고속도로에서 공장 지역까지 약 175만불을 들여 약 3Km 구간을 고속도로화 할 계획임. 동 건설 계획은 현재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이 진행 중임.
- 또한, CJ의 공장 가동을 위해 도시가스공급회사(COMGAS)는 약 2천2백만 헤알을 들여 총 19Km 에 달하는 가스송수관 공사를 실시할 계획임.

사. 영업 전망

- 브라질은 풍부한 천연자원과 풍부한 노동력을 기반으로 농축산업 위주의 성장을 지속하며 현재 원당 생산량 세계 1위, 옥수수 생산량 세계 3위이자 세계적인 육류수출국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음.
- 따라서, 브라질이 현재 연 1,300만불 규모의 리지나(Lisina)를 수입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향후 내수시장 확보에도 유리할 전망이다.
- CJ는 연간 5만톤의 생산량 중 20%를 내수 시장에 공급하고, 80%는 유럽 및 미주 지역으로 수출 계획

(4) LG전자의 휴대폰 공장 신설 투자

가. 투자개요

- 준공일: '05. 7. 19
- 투자형태 : 단독투자
- 투자지역 : 상파울루
- 사업내용 : 휴대폰 생산
- 투자금액 : 6천만 달러

나. 추진경과

- 2005년 7월 19일 LG전자(주) 브라질 현지법인은 총 6천만 달러를 투자하여 CDMA와 GSM 기종의 7개 휴대폰 생산라인을 갖춘 휴대폰 공장을 준공
- 이번 휴대폰 공장은 기존 LG전자(주) 브라질 생산공장이 위치한 따우바떼 (Taubate)에 총 11,000 평방미터 위에 건설되었으며, '99년부터 모니터와 휴대폰을 생산하고 있던 기존 공장에서 4개 라인을 이전함. 이번 브라질 공장 준공을 계기로 브라질 현지에서 휴대폰 생산, 판매, 마케팅, 서비스 등을 한곳에서 제공하는 현지 완결형 서비스 체제를 갖추게 됨.
- 한편, 동 준공식에는 LG전자(주) 본사 MC사업본부 박문화 사장과 브라질 룰라 대통령을 포함하여 브라질 정부 각료 3명, 상파울루주지사 등 내·외 인사 300여명이 준공식에 참석하였음.

다. 향후 운영계획

- LG전자(주) 브라질 현지법인은 따우바떼 휴대폰 공장을 브라질 내수시장을 포함하여 아르헨티나, 페루, 칠레 등 인접 남미 국가 등의 해외시장 공략을 위한 글로벌 생산기지로 육성해 나갈 전략임.
- 브라질 휴대폰 시장은 7,340만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중남미 최대 이동통신 시장으로 '04년 LG전자 브라질 법인은 브라질 시장에서 최대 CDMA사업자인 VIVO사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선두 공급업체로 자리 잡고 있음.

- 현재 LG전자는 브라질 CDMA 부문에서 25%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여 업계 1위이며, GSM 부문에서는 시장점유율 10%를 차지하고 있어 업계 3위에 있음.
- LG전자의 '04년 CDMA 및 GSM 전체 판매량은 총 4천만대를 기록하였으며, '05년 판매목표는 7천만대임. 이는 '05년도 모기업인 LG전자(주)의 브라질 총 판매실적의 35%에 달하는 규모임.
- 한편, LG전자 브라질 법인은 2001년부터 브라질 최고의 축구 명문 클럽 '상파울루 클럽 팀(SPFC, Sao Paulo Football Club)'을 후원, 매년 2000만 달러 이상의 광고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SPFC와 공동으로 약 10 톤 분량의 구호 음식을 상파울루 주정부에 기증하는 등 룰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아퇴치 프로그램인 '포미 제로(Fome Zero)'에도 참여하고 있음.

(5) 기타 투자 사례

가. 삼성전자

삼성전자 마나우스 생산법인			
진출국가	브라질	진출지역	전체(전체)
업체명(영문)	Samsung Eletronics Da Amazonia Ltda		
Address	Rua Min.Joao Goncalves de Araujo,788, Dis.Industrial, Cep 69075-830, Manaus, AM, Brasil		
Tel	(55-92) 614-1000	Fax	(55-92) 614-1009
e-mail	ykyoo@samsung.com	Home Page	http://www.samsung.com.br
Press	유영관 부장		
업종(대분류)	제조업	업종(중분류)	전자, 통신장비
업종(소분류)	가정용 기구		
취급분야	모니터,HDD,칼라TV		
진출형태	법인-단독	진출형태 (기타)	생산법인
진출년도	1995 년	종업원현황 (한국:외국)	4 : 658 명
자본금	US\$ 10,000 천	투자금액 (한국:외국)	US\$ 85,000 천
연간 매출액	US\$ 400,000 천		

삼성전자 캄페나스 생산법인			
진출국가	브라질	진출지역	전체(전체)
업체명(영문)	Samsung Eletronics Da Amazonia Ltda		
Address	R.Thomas JR Nielsen,150, Cj A, Pq. Industrial, Campinas, SP, Brasil		
Tel	(55-19) 4501-2003	Fax	(55-19) 4501-2036
e-mail	slam01.lee@samsung.com	Home Page	http://www.samsung.com.br
Press	이성덕 부장		
업종(대분류)	제조업	업종(중분류)	전자, 통신장비
업종(소분류)	통신기기, 방송장비		
취급분야	휴대폰		
진출형태	법인-단독	진출형태 (기타)	생산법인
진출년도	2004 년	종업원현황 (한국:외국)	5 : 466 명
자본금	US\$ NA 천	투자금액 (한국:외국)	US\$ 35,000 천
연간 매출액	US\$ 300,000 천		

나. 삼성 SDI

삼성 SDI 마나우스 생산법인			
진출국가	브라질	진출지역	전체(전체)
업체명(영문)	Samsung SDI Brasil Ltda		
Address	Av. Eixo Norte/Sul, S/N, Dist. Industrial, Cep 69088-480, Manaus, AM, Brasil		
Tel	(55-92) 2121-6010	Fax	(55-92) 2121-6022
e-mail	keunbae.lee@samsung.com	Home Page	http://www.samsungdi.com.br
Press	이근배 상무		
업종(대분류)	제조업	업종(중분류)	전자, 통신장비
업종(소분류)	전자관, 기타 전자부품(다이오드, 트랜지스터, 유사 반도체 제외)		
취급분야	브라운관, TV 및 모니터부품(DY), 핸드폰용 LCD모듈		
진출형태	법인-단독	진출형태(기타)	생산법인
진출년도	1996 년	종업원현황(한국:외국)	21 : 1,700 명
자본금	US\$ 105.000 천	투자금액(한국:외국)	US\$ 220.000 천
연간 매출액	US\$ 300.000 천		

다. 포항제철

코브라스코(KOBRASCO)			
진출국가	브라질	진출지역	전체(전체)
업체명(영문)	Companhia Coreano-Brasileira de Pelotizacao		
Address	Av. Dante Michelini 5500, Cx. Postal 8021 - Cep 29090-900 - Vitoria, ES		
Tel	(55-27) 3333-5984	Fax	(55-27) 3333-4762
e-mail	wwjeon@posco.co.kr	Home Page	http://NA
Press	전원우/W.W Jeon		
업종(대분류)	제조업	업종(중분류)	기타제조
업종(소분류)	기타제조		
취급분야	제조업-제철원료(Pellet)		
진출형태	법인-합작	진출형태(기타)	합작법인 (Posco : CVRD = 50%:50%)
진출년도	1996 년	종업원현황(한국:외국)	3 : 7 명
자본금	US\$ 77,000 천	투자금액(한국:외국)	US\$ 110.000 천
연간 매출액	US\$ 181.000 천		

라. 동양크레디텍

(주)동양크레디텍 브라질 법인			
진출국가	브라질	진출지역	전체(전체)
업체명(영문)	Dong Yang Creditech do Brasil Ltda		
Address	R. Taiwan, 120 Bl. F, Jardim Santa Ines II, Zip 12248-000, Sao Jose dos Campos, SP, Brazil		
Tel	(55-12) 3902-5520	Fax	(55-12) 3912-9063
e-mail	ysjeon@dycrt.co.kr	Home Page	http://www.dycrt.co.kr
Press	전용석/Y.S Jeon		
업종(대분류)	제조업	업종(중분류)	전자, 통신장비
업종(소분류)	전자관, 기타 전자부품(다이오드, 트랜지스터, 유사 반도체 제외)		
취급분야	TV 브라운관 부품		
진출형태	법인-단독	진출형태(기타)	생산법인
진출년도	2001 년	종업원현황(한국:외국)	5 : 40 명
자본금	US\$ N/A 천	투자금액(한국:외국)	US\$ 2,000 천
연간 매출액	US\$ 10,000 천		

마. 메디슨

메디슨			
진출국가	브라질	진출지역	전체(전체)
업체명(영문)	Medison Do Brasil		
Address	R. Apiacas 910, Perdizes, Cep 05017-020, Sao Paulo, SP, Brasil		
Tel	(55-11) 3672-3552	Fax	(55-11) 3875-6105
e-mail	viannes@medison.com.br	Home Page	http://www.medison.com.br
Press	김기남/K.N Kim		
업종(대분류)	도·소매업(무역업)	업종(중분류)	도·소매(수리 포함)
업종(소분류)	기타		
취급분야	현지판매-의료기기		
진출형태	법인-단독	진출형태(기타)	판매법인
진출년도	1997 년	종업원현황(한국:외국)	1 : 50 명
자본금	US\$ 2,500 천	투자금액(한국:외국)	US\$ 2,500 천
연간 매출액	US\$ 13,000 천		

3. 투자진출 애로사항 및 진출시 유의사항

가. 애로사항

□ 노사관리상의 어려움

- 브라질은 인건비가 저렴하지만 고용주가 부담하는 사회보장세금이 많고 노동법도 근로자에 매우 유리하게 되어 있어, 부대비용 증가, 빈번한 노동소송, 높은 이직성, 고학력 숙련 노동력 부족 등의 문제점 상존

□ 조세제도의 복잡성

- 세금의 종류가 다양하고 과세기준이나 과세내용 등이 지나치게 복잡하여 기업의 세무회계 관리가 어려움.

□ 기초 인프라 부족

-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투자가 대체로 취약하고 특히 운송 수단이 발달하지 못해 철도, 차량 등의 운송비용이 매우 높음.

□ 기타 (환율, 언어장벽 등)

- 환율 변동 등 경제 불안정, 한국 상품의 인지도 부족, 유망 바이어 확보의 어려움, 언어(포르투갈어) 구사능력, 관련 부품산업의 미발달로 인한 자재조달의 어려움, 일관되지 못한 경제정책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
- 한편, 현지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들에게는 원거리와 시차로 인한 수출 상담활동 지장, 수출대금회수의 불확실성, 브라질 시장에 대한 정보 부족 등이 주요 애로사항

나. 진출시 유의사항

□ 지방정부의 인센티브 적극 활용 필요

- 브라질은 지역에 따라 지방정부 차원의 인센티브 제공범위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인센티브 내용이 지방 정부와 협상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투자 진출 전에 가능한 많은 혜택(세제감면, 공장부지 무상제공 등)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관련당국과 충분히 협의할 필요가 있으며, 실제로 많은 외국기업이 연방정부, 주정부 및 시정부와의 개별협의를 통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혜택을 부여받고 있음.

□ 유통업체의 지배력이 강한 시장 특성을 감안한 진출전략 필요

- 브라질은 유통업체의 시장지배력이 매우 강하여 제조업체는 주로 생산에만 집중하고, 유통업체가 판매를 전담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음.
- 따라서 제조업 분야 신규투자 업체는 판매망 확보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투입되고 있으므로 진출기간 단축을 위해 현지 기존업체를 합병 또는 인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참고> 우리기업의 중남미 IT 시장 진출 실태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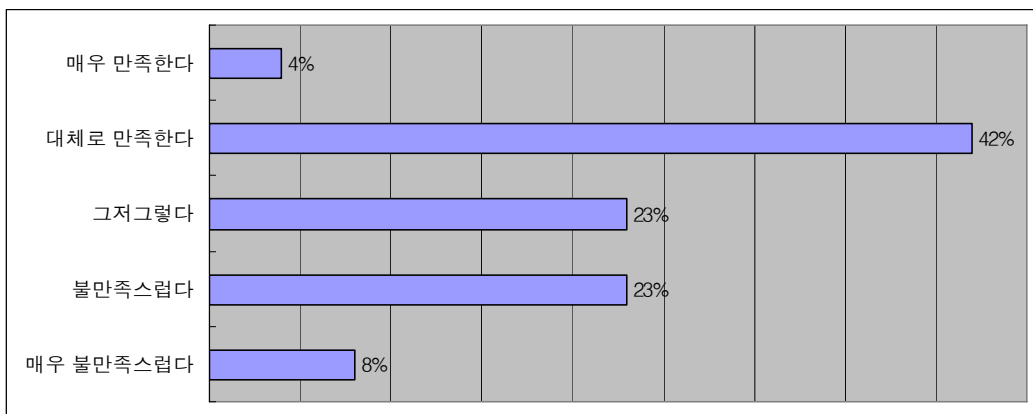
가. 조사방법

우리나라 개별 기업의 對중남미 IT 시장 진출실태와 주요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03년 8월 중 對중남미 IT 수출 또는 투자 실적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이메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76개의 설문조사 대상기업 중 26개 기업에서 31개¹⁾의 설문지가 회수되었다. 삼성전자, LG전자 등 16개의 대기업²⁾과 바콤, 컴맥스 등 10개의 중소기업이 설문에 응답해 주었으며, 취급 품목별로는 하드웨어 업체 11개, 소프트웨어 업체 3개, IT 서비스 업체 2개, 통신기기 업체 9개, 부품 업체 6개였다.

나. 진출성과 만족도

설문 기업들의 중남미 시장 진출에 대한 평가는 전체의 30%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불만족스럽다는 의견을 표시하였으나, 46%의 기업들이 중남미에서의 영업 실적에 대해 만족한다는 의견을 주었고 2000년 이후 중남미 지역의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그저 그렇다'의 의견이 23%인 점을 볼 때, 중남미 시장 진출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조사대상 기업의 중남미 시장진출 성과에 대한 평가



1) 대기업의 경우 사업부별로 복수 응답한 경우도 포함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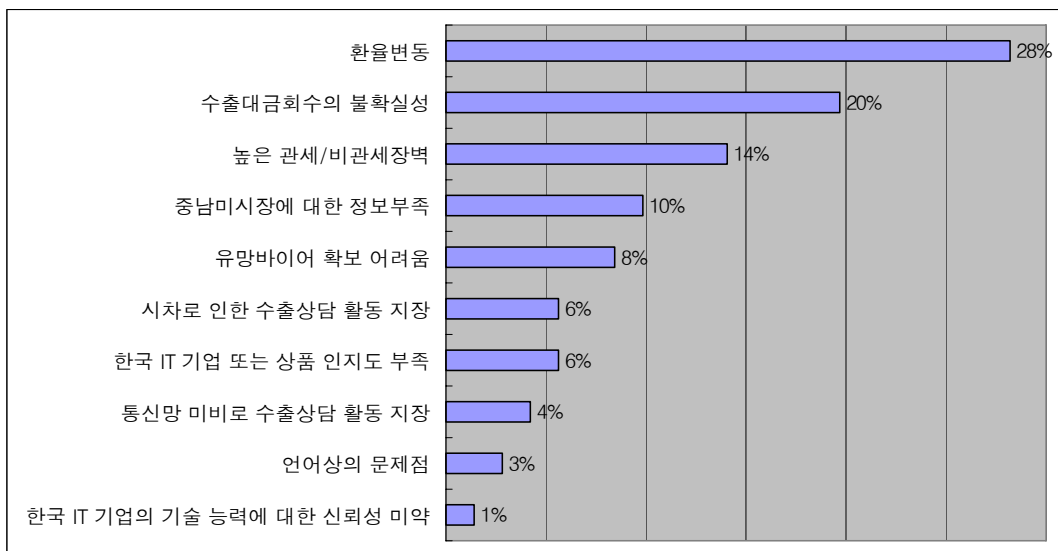
2) 여기에는 멕시코, 브라질, 페루, 칠레 등 현지 주재원의 설문 결과도 포함되었음.

다. 애로사항

우리 기업들의 중남미 시장 진출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걸림돌로는, 전체 설문 기업 중 28%가 환율 변동 등 중남미 국가의 경제 불안정을 지적하였고 19%는 수출 대금 회수의 불확실성에 응답한 것으로 보아, 여전히 중남미 국가들의 컨트리 리스크가 동 지역 진출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IT 품목에 부과되는 고율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중남미 시장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 부족, 한국 제품에 대한 인지도 부족 등이 주요 애로사항으로 지적되었고, 특히 중소기업들에게는 유망바이어 확보의 어려움이 시장 진출의 큰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의외로 언어상의 어려움, 한국 IT 기업들의 신뢰도 부족 등은 기업 입장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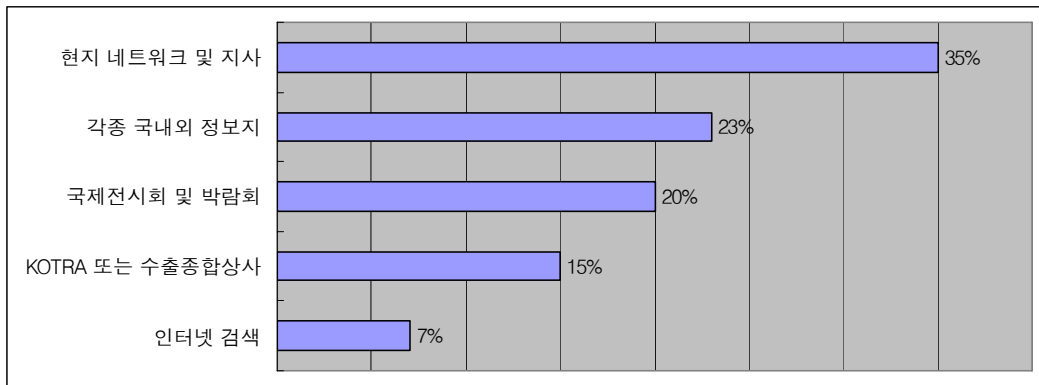
<그림 7-6> 중남미 시장진출시 주요 애로사항



라. 중남미 시장정보 입수경로

중남미 진출 기업들의 시장 정보 입수 방법을 보면, 전체 설문 기업 중 35%가 현지 네트워크 및 지사 등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부분이 현지 법인 및 지사를 가지고 있는 대기업들이었다. 이에 반해 중소기업들은 중남미 정치·경제 관련 국내외 정보지를 비롯하여, 인터넷 검색 등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20%의 기업이 응답한 국제전시회 및 박람회를 통한 시장 정보 입수 방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골고루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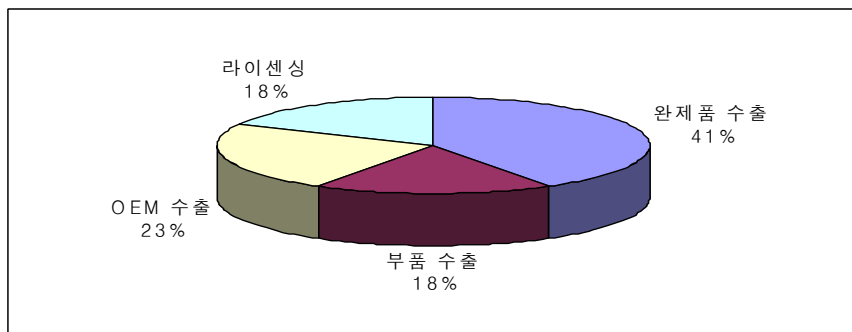
중남미 시장정보 입수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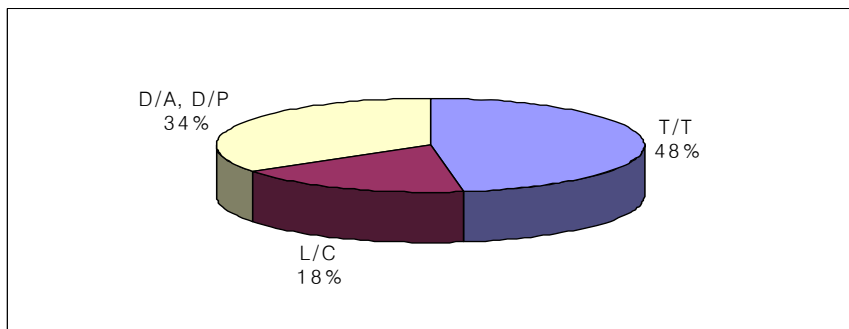
마. 수출형태 및 수출대금 결제방법

수출 형태에 있어서는 완제품 위주의 수출 전략을 구사하는 기업이 전체의 46%에 달하였고, OEM 방식과 부품 위주 수출은 각각 전체의 26%, 20%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라이선싱 방식의 수출 형태는 게임 업체 등을 포함하여 3개의 기업만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대금 결제 방식은 전체 기업의 47%가 T/T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D/A, D/P와 L/C 이용 기업은 각각 34%, 18%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기업의 수출 형태



조사대상 기업의 수출대금 결제방식



바. 주요 경쟁사

전체 설문기업 중 58%에 해당하는 휴대폰, 소프트웨어 제조업체들은 현지국 다국적기업이 주요 경쟁업체라고 응답한 반면, 모니터, CCTV 카메라 수출업체들은 동종업종 한국기업을 주요 경쟁상대로 지적하였다.

사. 향후 투자계획

중남미 직접투자 계획에 대한 설문에서는 현재 투자하고 있지 않은 조사대상 기업들 중 33%가 향후 투자 계획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67%는 앞으로도 투자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들에게는 현지 투자가 다소 부담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진출확대 방안

가. 진출전략

□ 중장기적 투자가 바람직

- 과거 우리기업은 브라질 경제가 어려움에 처하여 일시적으로 영업실적이 부진하면 시장상황 호전을 기다리지 못하고 철수하여, 경기 확장 국면에서 경쟁사들이 과거 손실을 만회하고도 남는 막대한 이익을 실현하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사례가 다수 있었음.
- 브라질 시장은 성장 잠재력이 높고 발전 단계에 있는 상황이므로 중장기적으로 시장을 개척한다는 자세가 필요함. 유럽 및 미국계 기업들도 이 같은 전략을 구사해 상당한 성과를 얻고 있는 바, 우리기업도 경기변동에 따라 시장 진입과 철수를 반복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투자할 필요가 있음.

□ 브라질 내수시장 및 남미 국가들을 목표로 한 제조업 진출 확대 바람직

- 브라질은 인구 1억 8천만의 거대시장일 뿐 아니라 Mercosur이라는 지역경제 블록을 주도하는 국가로 역내 회원국간 관세를 철폐하여 브라질 진출은 사실상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진출까지 확대 해석하여야 함.
- 따라서 단순한 수출거래 보다는 브라질 내수시장과 인접국가로의 수출까지 고려한 제조업 분야의 대 브라질 시장진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중소협력업체의 동반진출 바람직

- 對브라질 투자는 대기업 위주의 단독투자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주로 부품의 대부분을 우리나라에서 수입하여 현지에서 조립 생산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 그러나 삼성, LG 등 현지진출 우리나라 대기업에 부품을 공급하는 중소협력업체가 동반 진출하여 현지에서 직접 부품을 생산·공급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브라질 현지교민들은 섬유, 봉제업 등을 통해 상당한 자본을 축적하고 있고 IT, 기계 등으로 업종 변경을 모색하고 있어, 현지 사정에 어두운 중소기업의 경우 이들과의 협력을 통한 투자 진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자원개발사업에 대한 공기업의 선도투자 필요

- 브라질은 풍부한 부존자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개발되지 않은 자원이 많은 상태이어서 자원개발 사업기회가 풍부한 국가임.
- 그 동안 브라질 자원개발사업은 정부규제와 높은 사업위험 등으로 인해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여 왔으나, 최근 국제 원자재난을 계기로 브라질 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음.
- 주요 전략자원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자원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자원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해외자원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고, 브라질은 우리나라의 기업의 참여 여지가 많은 해외자원개발 사업국가 중 하나임.
- 전략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는 물론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매력적인 투자사업이기도 한 브라질 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의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 이를 위해 우선 자원개발관련 공기업의 선도투자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자원개발사업의 위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브라질 기업이 추진하는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지분참여도 적극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나. 진출 유망분야

1) IT 산업

광케이블 및 ADSL

- 인터넷 보급 확대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IT 인프라 구축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 인터넷 사용인구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가격경쟁력과 기술우위를 보이는 우리기업의 동 분야 진출이 유망

컴퓨터 부품

- 이미 세계 굴지의 컴퓨터 회사들이 진출한 데 반해 브라질에서 자체로 생산되는 부품이 거의 없는 점을 감안, 컴퓨터 부품 등의 틈새시장 공략

휴대폰

- 브라질에서 무선통신 이용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20% 미만으로 향후 증가세는 유지될 전망이다.
- 이에 따라 한국제품 중 브라질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은 휴대폰은 여전히 제1의 수출품목 위치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동국의 빈부격차 수준을 고려, 고부가가치에서 저가 제품까지 다양한 판매전략 추진

2) 자동차, 부품 산업

- 거대한 내수시장, 경기회복 가능성 등을 감안, 자동차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고율의 관세 등의 이유로 수출 보다는 현지투자가 바람직
- 브라질의 자동차생산이 세계 10위 수준이며 향후 포드, 폭스바겐, 피아트 등 다국적기업들도 투자를 늘릴 계획이어서 자동차부품, 타이어 등의 수요 증대 예상

3) 전기전자, 엘리베이터 제조업

- 큰 시장성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운송, 고운임, A/S의 문제 등을 감안, 단순한 수출 보다는 현지 생산-판매-A/S 체제 구축이 바람직

4) 원자재 가공산업

- 제지, 펄프, 제화 및 제철 산업 : 풍부한 원자재를 활용한 현지 생산이 유리하며, 브라질 업체와 광물자원 개발 등에 합작투자 추진 필요
- 농업생산 진출 : 식량 확보 차원의 농업생산과 FTAA, EU-Mercosur 자유무역지대를 겨냥한 농산물 가공업 투자 진출 유망

5) 보안 산업

- 현지의 치안불안으로 인해 감시카메라, 디지털 열쇠, 지문인식 시스템 등 보안관련 제품의 수출 유망

6) 기타

- 교육기자재 : 과학실험용기기, 어학 및 통신교육 등 직업교육관련 실습기자재
- 보건 위생산업 : 의료기기, 의료용품, 의약품 등
- 환경 보호관련 주변제품 : 공기정화기, 정수기 등
- 산업현대화 관련 제품 : 섬유 및 금속 가공기계, 기타 일반 기계류, 계측기기, 전동공구, 금형, 용접봉 등

<참고자료 : 최근 브라질 정치·경제 동향>

<참고자료 : 최근 브라질 정치·경제 동향>

I. 일반개황 및 최근 정치·경제 동향

1. 일반개황

- 인 구 : 181백만 명 (2005년)
- 면 적 : 8,512천 km² (한반도의 43배)
- 수 도 : 브라질리아 (182만 명)
- 정부형태 : 대통령중심제(Luiz Ignacio Lula da Silva 대통령)

2. 주요 경제지표 (2005년)

- 국내총생산(경상 GDP) : 8,215억 달러
*한국 8,225억 달러
- 1인당 경상 GDP : 4,530달러
- 외환보유액('05. 12월 기준): 545억 달러
- 교역규모 : 수출(1,183억 달러), 수입(736억 달러)

브라질의 주요 교역국 ('04년 기준)

(단위 : %)

수 출		수 입	
국 가	비중	국 가	비중
미 국	21.1	미 국	18.3
아 르 헨 티 나	7.6	아 르 헨 티 나	8.9
네 덜 란 드	6.1	독 일	8.1
중 국	5.6	중 국	5.9

자료 : EIU

[브라질의 주요 수출품목]

- 수송장비(12.5%), 금속제품(7.0%), 대두(7.0%), 화학제품(1.5%)

[브라질의 주요 수입품목]

- 기계(19.8%), 화학제품(15.3%), 석유제품(14.2%), 수송장비(9.0%)

3. 최근 경제동향

가. 국내경제

(단위 : %)

구 분	2002	2003	2004	2005e	2006f
경제성장률	1.9	0.6	4.9	2.6	3.4
재정수지/GDP	-4.6	-5.1	-2.7	-3.3	-3.4
소비자물가상승률	8.5	14.7	6.6	6.8	5.2

자료 : EIU

□ 경제성장세 지속

- 면적이나 인구, GDP 면에서 남미대륙의 절반을 차지하는 브라질은 아르헨티나의 금융위기, 전력난, 대통령 선거를 전후한 정국불안 등으로 인해 2001~03년 동안 경기침체와 금융불안이 지속되었음.
- 그러나 룰라 정부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회복과 국제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출호조 등에 힘입어 2004년에는 4.9%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음.
- 2005년에도 수출호조가 지속되면서 경제가 성장세를 이어갔으나, 경기과열로 인한 물가상승을 우려한 브라질 중앙은행의 고금리정책과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정부의 긴축재정정책 지속으로 성장률이 2.6% 수준으로 낮아졌음.
- 그러나 지난해 4/4분기 이후 브라질 중앙은행이 계속해서 금리를 인하함에 따라 내수 및 투자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수출호조도 지속되고 있어, 금년에는 3.4~4.0%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재정수지 개선추세 지속

- 긴축정책 지속으로 IMF와 합의한 금융비용을 제외한 기초재정수지 흑자 목표를 달성하고 있으나, 막대한 부채 원리금 상환액으로 인해 재정수지는 적자가 지속되고 있음.

- 룰라 정부가 긴축재정정책을 고수하는 한편, 경기회복으로 세수가 증가함에 따라 2004~05년에는 재정수지 적자규모가 GDP의 2.7~3.3%로 축소됨. 금년에도 건전한 재정정책 지속과 경제성장 기조의 유지에 힘입어 재정수지 적자규모는 GDP의 3.4%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소비자물가 하향 안정세 지속 전망

- 2003년에는 금융불안으로 인해 연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4.7%까지 상승하였으나, 이후 점차 하향 안정화 추세를 보여 2005년에는 6.8%를 기록함.
- 금년에도 경제성장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나, 미국 달러화 약세로 인한 헤알화 강세 지속, 중앙은행의 신중한 물가관리정책 지속 등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5.2%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경제개혁정책 지속 추진

- 브라질은 헤알플랜이 도입된 1994년 이후 전력, 통신, 석유, 가스 등 기간산업분야의 국가독점 폐지, 국영기업 민영화, 무역자유화, 조세개혁, 행정개혁, 사회보장개혁, 노동개혁 등 경제안정과 발전을 위한 각종 개혁정책을 시행해 왔음.
- 룰라 정부도 지속적인 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선결과제인 재정수지 균형 달성을 위해 사회보장개혁, 세제개혁 등 각종 개혁정책과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2004년 하반기 이후 환율 하락세 지속

- 2004년 하반기 이후 급속히 진행된 환율 하락세가 2005년 들어서도 지속되었음. 달러대비 헤알화 가치는 2004년 5월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금년 3월 현재 2.1헤알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최근 헤알화 강세는 세계적인 달러화의 약세 이외에도 상품수지 및 경상수지 흑자에 따른 외화유입, 고금리 및 주식시장 호황 등을 겨냥한 막대한 외

국인 포트폴리오투자자금과 브라질 내수시장 진출을 위한 외국인직접투자 증가 등에 기인하고 있으며, 당분간 헤알화 강세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나. 대외거래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십억 달러, %)

구 분	2002	2003	2004	2005e	2006f
경 상 수 지	-7.6	4.2	11.7	14.1	13.7
경상수지/GDP	-1.7	0.8	1.9	1.7	1.5
상 품 수 지	13.2	24.8	33.7	44.7	42.6
수 출	60.4	73.1	96.5	118.3	130.1
수 입	47.2	48.3	62.8	73.6	87.5
F.D.I. 유 입 액	16.6	10.1	18.2	15.2	17.7
외 환 보 유 액	37.7	49.1	52.7	54.5	..

자료 : EIU

□ 경상수지 흑자 지속

- 헤알화 평가절하와 국제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수출이 호조를 보임에 따라 2003년에 경상수지가 1993년 이후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하였음.
- 2004년에도 수출이 전년대비 32% 증가한 965억 달러에 달하는 등 기대 이상의 큰 폭의 수출 신장세가 지속됨에 따라 상품수지 흑자는 정부 목표(300억 달러)를 상회하는 337억 달러에 달하였으며, 경상수지 흑자규모도 이에 비례하여 GDP의 1.9%인 117억 달러로 증가함.
- 2005년에도 수출증가세가 지속되어 사상 최초로 수출이 1,000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상품수지와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각각 447억 달러와 141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금년에도 수출 호조 지속으로 상품수지와 경상수지 흑자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나, 경기회복에 따른 수입증가로 흑자 규모는 소폭 축소될 것으로 전망됨.

□ FDI 증가세 지속 전망

- 2003년에는 해알화 평가절하에 따른 수익성 감소, 인프라 프로젝트 감소, 구조개혁 미비 등으로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가 2000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01억 달러를 기록하는 데 그침.
- 그러나 2004년 들어 M&A 호조, 자동차와 통신업 설비투자 증대 등으로 FDI가 182억 달러(중남미 2위, 세계 10위)로 크게 증가하였고, 인프라투자 확대를 위한 정부, 민간합동투자(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 프로그램 추진 등으로 2005년에도 FDI 유입액은 연간 163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외환보유액 꾸준히 증가

- 수출 증가로 인해 외환보유액을 포함한 대외지급준비자산이 꾸준히 증가하여 2004년 말 374억 달러에서 2005년 한 때 617억 달러까지 증가하였음. IMF 차관 156억 달러 조기상환 등으로 2005년 말 외환보유액은 545억 달러 수준을 보이고 있음.

4. 최근 정치·사회 동향

가. 정치 안정성

□ 룰라 정부 출범 이후 정국안정 유지

- 2002년 10월 대선에서 승리하여 2003년 1월 출범한 노동자당(PT)의 룰라 정부는 중도좌파 성향의 노동자당 정부라는 점에서 국내외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아 왔으나, 적극적인 개혁정책으로 룰라 정부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는 대부분 해소된 상태임.
- 한편, 대선과 동시에 실시된 하원의원 선거에서는 노동자당이 91석(선거전 58석)을 차지해 제1당으로 부상함. 그러나 노동자당은 하원(513석)의 과반수에는 크게 미달해 중도우파인 자유당(PL) 등과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음.

□ 룰라 정부, 야당의원 매수 스캔들로 정치적 위기 직면

- 2002년 대선 유세기간 중 집권 노동자당(PT)의 비밀계좌로 불법정치자금 300여만 달러가 입금됐다는 의회 증언에 이어, 노동자당이 법안통과를 위해 80여명의 야당의원들에게 불법 자금을 제공했다는 여당인 노동자당의 야당 의원 매수 스캔들로 룰라 정부가 최대의 정치적 위기를 겪고 있음.
- 야당의원 매수 스캔들이 제기되자 룰라 대통령의 최측근인 조제 디르세우 전 정무장관과 노동자당(PT) 지도자 4명이 사임하였으며, 룰라 대통령은 야당의원 매수 기도에 직접 개입하지는 않은 것으로 밝혀졌지만, 룰라 정부의 최대 장점이었던 도덕성과 청렴성이 크게 훼손되고 지지율도 35% 수준으로 하락함.
- 아직까지도 2006년 10월 대선 예상 시나리오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룰라 대통령의 재선이 유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향후 정국 동향에 따라 대선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도 있음.

나. 사회 안정성

□ 빈부격차, 치안불안 등의 문제 심각한 편

- 극심한 빈부격차와 치안불안 등은 고질적인 사회불안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으나, 지역간, 계층간 갈등은 크지 않아 사회전반적인 소요로 발전할 가능성은 크지 않음.

다. 대외 관계

□ 제3세계 리더 역할 추구

- 대외적으로는 국제사회에서 제3세계의 이익을 적극 대변하는 등 자주적 외교노선을 표방하고 있음. 칸쿤 제5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선진국의 농산물 수입규제 완화를 강력히 주장하는 농산물 수출국가연합(G22)을 결성하였고, 남미·아랍 정상회담을 주도하였으며, UN 안보리 상임위 진출을 추진하는 등 제3세계 국가의 리더 역할을 자임하고 있음.

- 미국과는 미주자유무역협정(FTAA) 협상, 철강 분쟁, 농업보조금 등의 이슈에서 잦은 마찰을 보이고 있으나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며, 아르헨티나 등 주변국과도 대체로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5. 국제신인도 및 대외지급능력

가. 국제신인도

□ 국가신용등급 상승

- 금융 불안이 발생한 2002년 일제히 브라질의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하였던 세계 3대 국제신용평가기관들(S&P, Moody's, Fitch)은 룰라 정부 집권 이후 개선된 거시경제 상황을 반영하여 2004년 9월에 일제히 브라질의 국가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하였음.
- 2005년 10월 Moody's가 브라질의 신용등급을 B1에서 Ba3로 다시 한 단계 상향조정하였음.
- 금년 2월 28일 S&P도 브라질의 신용등급을 BB-에서 BB로 한 단계 상향조정했음. 이로써 브라질은 투자적격등급(BBB- 이상) 보다는 두 단계 낮은 수준이지만 국제신용평가기관이 부여한 등급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인접국인 콜롬비아 및 페루와 같은 등급이 되었음.

□ 최근 브라질 국가신용등급 변화

- 무디스 : B2('02.8.12) → B1 ('04.9.9) → Ba3 ('05.10.12)
- S&P : B+('02.7.2) → BB- ('04.9.17) → BB ('06.2.28)
- Fitch : B+('02.10.21) → BB- ('04.9.28)

□ 주요 ECA의 지원태도

- 미국 EXIM : 정상인수
- 영국 ECGD : 단기인수가능
- 독일 Hermes : 정상인수

나. 대외지급능력

대외채무규모 변화 추세

(단위: 십억 달러, %)

	2002	2003	2004	2005e	2006f
총 외 채 잔 액	228.6	235.4	220.0	188.5	187.3
총외채잔액/GDP	49.6	46.6	36.4	23.0	20.2
총외채잔액/수출	312.3	271.0	195.9	136.8	121.5
D. S. R.	68.2	63.3	45.0	39.5	39.2

자료 : EIU

□ 외채 상환불능 위험 낮아짐

- 수출호조와 FDI 유입 지속 등으로 인한 외환보유액 증가로 외채 상환불능 위험은 상당히 낮아진 것으로 평가됨.
- 브라질 정부의 적극적인 외채축소 노력에 힘입어 브라질의 총 외채잔액도 물라 정부 출범 직전인 2002년 말에 2,286억 달러였으나, IMF 차관 조기상환 등으로 2005년 말 현재 1,885억 달러로 크게 축소되었으며, GDP와 수출 대비 외채비율과 D.S.R. 등 주요 외채지표도 최근 경제성장과 수출증가로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음.

□ 1998년 이후 받아온 IMF의 지원 거절

- 2002년 6월 이후 금융불안이 심화되자, 브라질 정부는 9월에 IMF로부터 300억 달러의 대기성차관을 승인받았으며, 2002년 60억 달러, 2003년 240억 달러를 각각 인출한 바 있음.
- 2003년 11월에도 브라질 정부는 금융시장 안정과 수출 증가로 인한 외환보유액 증대에도 불구하고 금융불안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IMF로부터 148억 달러 규모의 대기성차관을 신규로 승인받았음.
- 그러나 148억 달러의 IMF 차관자금의 인출은 없었으며, 금년 들어 브라질 정부는 1998년부터 이어져 온 IMF의 자금 차입을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IMF와의 협상을 종료하였음.

□ IMF 및 파리클럽 채무 조기상환 결정

- 2005년 12월 IMF 차관잔액 156억 달러를 전액 조기상환하였음. 브라질 정부는 IMF 차관 조기상환과 더불어 2006~07년에 기일도래하는 파리클럽 채무 25.75억 달러도 조기상환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음.

□ 브래디 본드 잔액 조기상환 발표

- 금년 2월에도 브라질 정부는 브래디 본드 잔액 66.4억 달러를 4월 중순까지 전액 환매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이 발표가 있고난 후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S&P는 브라질의 신용등급을 사상 최고 수준인 BB로 상향조정 하였음.
-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는 2006년과 이듬해인 2007년까지 기일도래하는 채무를 모두 조기상환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과거 선거가 있는 해에 반복되었던 금융불안을 조기 예방하는 한편, 브라질의 투자신인도를 제고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됨.

6.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 1959. 10. 31 (북한과는 2001. 3. 9)

□ 주요협정 : 무역협정('63), 문화협정('67), 이중과세방지협정('91), 과학기술협력협정('92), 투자보장협정('95), 사증면제협정('01), 범죄인도조약('02)

□ 교역 현황

최근 對브라질 수출입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2002	2003	2004	2005	주요 품목
수 출	1,247	1,137	1,785	2,411	전자전기, 섬유, 자동차
수 입	1,247	1,619	2,195	2,500	철광석, 철강제품, 농산물

자 료: KOTIS

□ 해외직접투자현황(2005년 12월말 현재, 순투자 기준) : 57건 444,296천 달러